

中共 開放化政策의 未來와 展望

邊 裕 淵

I. 緒 論

II. 開放政策의 經濟理論 基礎

III. 中共 開放政策의 各種 措置

IV. 開放政策의 成果

V. 開放政策으로 惹起되는 諸般問題

VI. 展 望

I. 緒 論

1978년 이전의 中共경제는 계획경제체제 아래, '자급자족'과 '자력갱생'의 발전정책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대외무역이 경제활동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¹⁾ 또한 대외무역에 있어서 共產主義國家를 주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타 다른나라와의 경제관계는 정치목적에 따른 것으로 제한을 받았었기에, 폐쇄된 경제사회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30여년의 폐쇄경제가 中國大陸에 남긴 것은, 여전히 빈곤하고 궁핍한 낙후된 모습으로, 인민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하였기에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었다. 中共의 지도당국은 앞으로 정권의 안정까지도 위협할지 모를 이 제도의 수정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1978年 2月, 五期全人大 一次會議를 개최, 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를 再起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금세기 말엽에는 농업과 공업의 총생산치는 배배로 증가할 수 있고 그때의 국민 1인당 평균소득이 800-1000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1980년 미화(달러) 구매력으로 환산함).²⁾

1) 1978년 中共의 대외무역총액은 공업·농업 총생산치의 6.16%이었다.

2) 胡耀邦, 「全國開創社會主義現代化建設的新局面」 中共 제 12차 全人대의 報告中, 1982. 9. 1.

中共이 말하는 4개현대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제한요소로는 제도 이외에도, 인력·기술·자금 등이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共產制度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지식의 원조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여, 1978년 12월에 개최된 中共 제 11기 3중전회에서는 '대내 활성화와 대외 개방'의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中共은 대외무역의 강화와 대외개방정책의 수행이 4개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임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대외무역정책이 이미 과거와 비교하여 개방되었고, 또 각 성(省)·시구(市區)의 대외무역 한도액을 확대하였으며 각 성·시의 대외무역공사 조직을 허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홍콩이나 해외로의 상품수출은 독자적이거나 혹은 외국무역상과 직접 협상하고 부분적인 外換 준비율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시 2년후에, 개별적 정책수행으로 인한 정책의 통로가 많아지게 되자, 1984년 1월을 기해서 통일된 지도와 창구의 일원화관리제를 실시하였으며, 점차 수출과 수입의 대리제를 실시하게 된다. 각 부분의 대외무역기업은 정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된 경영과 재산으로 이익과 손해를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³⁾

中共은 대외 경제·무역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들의 대외무역기구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국제무역조직에 적극 가입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뿐 아니라 각국의 금융기구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일본, 서구의 주요한 무역국들로부터 특혜관세대우를 받게 되었다. 근년에 와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관세 협정과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할 의욕을 보이며 국제채권시장의 매매에 의욕적인 참여를 나타내고있다. 또 외국은행의 대륙지점설립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무역을 통하여 쉽게 中共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中共은 조세우대혜택을 통하여 외국과의 기술협정을 맺음으로써 기

3) 中共 經貿部副部長 鄭拓彬의 「대외무역체제개혁에 관한 담화」 「經濟日報」 1984. 5. 20.

술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本文에서는 中共이 실시하고 있는 개방정책의 채택수단과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과, 그리고 이에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들을 연구 판단하고자 한다. 本文에서 중심으로 토론할 문제들은, 개방정책의 경제이론적 기초를 포함하여, 중공이 개방정책을 채택하기위한 조치, 개방정책의 성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 그리고 전망까지 다루고자 한다.

II. 開放政策의 經濟理論 基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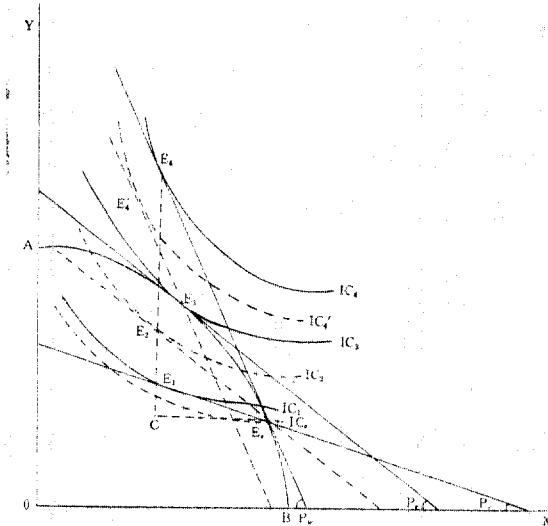
개방경제 사회는 국제 분업의 원리에 의거하여 생산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고 나아가서 사회의 복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中共은 과거 소련식의 '중앙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여, 공유재산제도가래 모든 국가적 경제활동은 완전히 國家의 관료체제에 의하여 집중관리가 이루어졌고 행정명령으로 시장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국가의 통일된 자금분배가 이루어졌고, 노동취업도 역시 정부의 안배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산제품은 통일된 판매와, 구매의 제도가 채택되었고, 그리하여 그 제품의 가격 또한 정부가 결정하였다. 이런 제도는 자원의 분배에 혼란을 야기시켰고, 한정된 생산자원으로 인하여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산의 낭비가 야기되었다.

자원사용효율의 최종적인 표현은 국민복지수준을 나타낸다. 지금부터 폐쇄경제와 개방경제, 그리고 관제경제체제하의 국민복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수준과 생산자원을 미리 정하여, X와 Y 두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두 종류 제품생산결합의 궤적을 AB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이 이 두 제품의 생산가능곡선이며, 이제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기호가 변하지 않는다는 상황아래, 사회대중의 X·Y 두 제품에 대한 소비결합은 두 제품의 상대가치(교환가치)

〈그림-1〉 : 개방경제, 폐쇄경제, 관제경제의 사회복지 비교



에 따라 정해진다. 이런 결합의 꺾어진 똑같이 만족수준을 유지할 경우의 두 제품의 소비결합을 표시한 것이다. 이것을 무차별곡선 IC_1 이라고 칭한다. 이 곡선의 위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 만족수준과 복지수준의 높고 낮음이 표시되는 것이다.

폐쇄경제가 자유경제체제 아래로 들어갈 때에는 소비의 무차별곡선과 생산가능성곡선이 생산결합을 E_3 로 표시되는 점에서 결정되며, 그리고 시장가격은 P_e 의 각도로 표시되고, 생산결합이 E_3 로 될때 소비결합도 역시 E_3 점으로 표시된다. 그리하여 생산과 소비가 P_e 의 가격아래 균형을 초과할 때, 이 때의 사회복지수준이 IC_3 로 표현된다. 이것이 이런 폐쇄경제체제 아래에서 자원사용효율이 최대로 되는 것이고 소비자의 복지수준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만일 앞으로 경제를 개방하고 국제분업에 참여하여 국제시장에서 X 제품의 가격을 Y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고, 그 상대가격이 P_w 가 되면, 이 가격아래 생산자는 그 생산을 E_5 점에서 생산하고 그리하여

그 소득수준은 상당한 정도로 P_w 직선에 접근하게 된다. 이 때의 소비결합은 당연히 E_4 가 되고, 그 사회의 복지수준은 IC_4 로 표시되며 생산구조가 E_0 에서 이루어지면 소비구조는 E_4 에서 이루어져, 수출은 E_0C 의 X 제품이 되고 세계가격선 P_w 에서 E_4C 의 가격인 Y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목적을 위해 예를들어 안전성을 고려한다든가, 아니면 자급자족의 원칙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구조의 변화를 원하지 않고 단지 무역개방만을 원한다면 사회복지수준은 IC_4' 에 도달하게 되며, 소비구조는 E_4' 에서 이루어지고, 생산구조는 여전히 E_0 에서 이루어진다. 고로 이 경제체제의 완전개방은 사회복지수준이 IC_4 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IC_3 에서 IC_4 로 증가함은, 시장개방으로 복지수준이 제고됨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교역효과(terms of trade effect)라고 할 수 있다. 또 IC_4' 에서 IC_4 로 증가함은 제품의 가격不變을 표시한 것이며, 단지 생산구조의 변화만을 표시한 것인데, 즉 생산要素는 X 나 Y 두 부분에서 다시 分波되며, 생산要素의 효율提高의 소치인 바, 즉 이를 생산효과(production effect)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관제경제체제 아래서 한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생산원료품인 동(銅)과 국민의 생필품인 곡식을, X 와 Y 로 정하고 그 생산결합을 E_0 라고 하여 불변가격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개방되지 않은 가격기능을 가리키며, 또한 개방되지 않은 국제무역이어서, 국민복지수준은 IC_2 로 하강되고 소비수준은 E_2 에서 이루어지며, 생산과 소비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되어 Y 제품은 공급부족이, X 제품은 과잉생산이 되게 된다. 이때 정부는 X 제품의 과잉과 Y 제품의 부족으로 인하여, X 제품의 가격인하와 Y 제품의 판매가격을 제고하기 때문에 두 제품의 상대가격은 <그림-1>의 P_c 로 표시된다. 이때의 복지수준이 IC 로 또 떨어지게 되고, 소비수준은 E_1 으로, 생산구조는 E_0 가 되는 불균형상태에 처하게 된다. 관제경제체제 아래서는 필연적으로, 소비구조와 생산구조가 장기적인 불일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배급제도를 채택하게 되고,

생산과 소비의 일치를 이루도록 하여 과잉과 부족을 해결하지만 이런 방법은 국민 복지수준을 다시 한번 하강시켜 IC_0 수준으로 만든다. 고로 관제 경제체제 아래서는 IC_3 에서 IC_2 사이를 생산으로 형성된 낭비를 표시하며, IC_2 에서 IC_1 으로 떨어진 것은 규정된 소비가 사회복지수준을 하강시킨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제한 혹은 관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복지의 손실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中共은 과거 30년(1949-1978년)동안 '계획경제'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관제생산 규정가격 배급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런 생산체제는 생산의 욕을 결핍하게 만들어 생산자원의 분열과 왜곡을 조성하고 국민 복지수준을 하강시켰다. 1979년 이후에 전면적으로 실시된 개방정책은 위에서 설명한 이론에 의하여 국민복지수준과 생산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Ⅲ. 中共 開放政策의 各種 措置

中共은 과거 외국자본을 이용함에 매우 신중함을 나타내었는데,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고 힘을 다하여 수출확장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四個現代化政策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그것이 채택하고 있는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경제특구(經濟特區)의 설치

中共은 中華民國의 가공수출지역(加工出口區)의 성공 선례에 따라, 1980년을 기하여 대륙의 심천(深圳), 주해(珠海), 선두(汕頭), 이문(廈門)의 네군데 '경제특구'를 개설하여 노동력과 배합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런 산업의 생산품은 가격이 낮아서 세계 수출 시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고, 자금의 來源으로 발전하였다. 합자경영, 합작경영, 보상무역, 원료가공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자금과 관리지식 그리

고 생산기술 등을 얻어내고 있다. 中共의 「應時百科辭典」의 해석에 따르면, “경제특구는 다른 지역의 개방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각종의 방식을 써서 외국과 화교의 공·상업계의 경제합작을 추진하고, 투자경영 혹은 합자경영이란 각종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특구 내에서는 공장을 개설할 뿐만 아니라 상업경영, 주택사업 혹은 개인노동이 가능하며, 어떤 경우에는 국가자본주의적 성질도 지니고 어떤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성질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경제특구를 설치한 정신과 의의는 中華民國의 가공수출지구(加工輸出地區)의 그것과 서로 같으며 단지 그 범위만을 약간 넓힌 것 뿐이다.

中共의 경제특구에 대한 설치방법과 목적은, 개방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후대하는 조건을 내세워, 중국대륙에 와서 투자하기를 꺼려하던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농업, 공업, 상업의 생산을 촉진하고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취업증가를 이루며 외국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외국의 경영과 관리지식을 흡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가지 서로 다른 경제체제의 완충지대로 작용하기도 한다. 中共의 4개의 경제특구설치가 이루어진 지, 5년이 지난 결과는 中共에 흥미를 불러 일으켰고, 다시 1984년 六期人大의 二次會議에서는 4개 경제특구에 이어서 연해지역 14개 도시를 경제개발 구역으로 다시 설정하였다. 이는 또한 경제특구에서 실시중인 약간의 정책 가운데 발전적인 근거로 삼았다. 이 14개 도시를 분류하여 보면, 대련시(大連市), 진황도(秦皇島), 천진시(天津市), 연대시(煙臺市), 청도시(靑島市), 연운항(連雲港), 남통시(南通市), 상해시(上海市), 영파시(寧波市), 온주시(溫州市), 복주시(福州市) 광주시(廣州市), 담강시(滬江市)에서 북해시(北海市)이다. 沿海都市를 개방한 주요 이유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업의 기술개조를 위주로 하여, 현재의 운수통로와 수·출입 통로를 발전·활성화 시키는 사업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도시들의 기본시설이 빈약하고, 너무 과속하게 개방되었기 때문에 14개의 연해도시를 대련시(大連市), 천진시

(天津市), 상해시(上海市), 광주시(廣州市)등의 4개로 그 개방도시를 축소하였다.

中共은 그 대륙내부에 있는 자원을 완전히 이용하기 위하여, 또한 경제 중심구를 획정,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사용하여, 내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양자강 삼각주경제구(상해중심) 주장 삼각주경제구(광주중심), 양자강 상류경제구(重慶·成都중심), 동북경제구(심양~장춘, 할빈중심)를 설정해 놓고 있다.

2. 석유의 연합개발과 외자도입

中共의 채무신용은 1982년에 세계은행으로부터 설정된 100개의 은행중 제 26위이고 1983년 유럽화폐 500개 은행중에서 24위로 설정되었으며, 1984에 이르러서 20위로 올라섰다. 이리하여 서방국가의 금융기구는 적당한 시기에 중공에게 자금을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중에 대륙붕석유개발계획에 의해 흡수된 외자가 가장 많으며 미국, 영국 등 몇개 석유회사들이 골고루 동 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3. 오일달러의 도입

中共은 1982년 부터 오일달러를 끌어들이는데 착수하여, 우선 쿠웨이트와 차관을 체결함으로써 미화 3,500만 달러를 들여왔는데, 주목할 점은 그 이자율이 겨우 2%에 불과하고 상환기간도 길어서 20년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금 中共이 쿠웨이트로부터 들여온 차관의 총액은 2억내지 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⁴⁾ 이외에도 中共은 또한 다른 중동 산유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더욱 많은 오일달러를 끌어들이려고 모색중이다.

4. 조세감면을 통한 외국기술의 도입

中共은 외국기업들이 기술투입으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제

4) 「共匪對外經濟研究」第159期, 經濟部 국제국편, 중화민국 71년 2월 16일.

택하고 그것을 장려하고 있다. 中共의 財政府는 각 성에 소속된 세무기관에, 일반적으로 대량의 기술설비를 하는 외국기업에게 조세감면을 가능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예를 들어 中共은 합자, 합작, 외국의 독자투자기업에 대하여 그것이 기술집약적 산업이거나, 투자금액이 3,000 만 달러 이상의 기업은 財政府의 허가를 경유하여 15%의 기업소득세만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수입투자의 생산 및 설비, 機資材, 수출을 위한 원료 및 필수품에 대해서는 관세나 工商統一稅를 면제해 주고 있다. 기술이전을 통한 조세감면의 신청은 반드시 中共의 발전 우선순위에 적합해야 하며 그 범위는 농업·임업·어업·목축업의 발전을 포함하고 기술의 발전, 에너지개발, 운수 및 기타 중요한 기본적인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구억제의 방법, 대규모의 기계제조 설비기술, 원자력기술, 發電기술, 석탄의 액화나 기화기술 등 기타의 선진기술을 포함한다.

5. 경제법규의 수정보완

관련된 경제법규가 완비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충분한 보증을 얻기 전에는 단지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中共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보장과 보호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상인들이 감히 장기적이고 대량의 투자를 하지 못하였고, 선진기술의 이전을 주저하였다. 中共이 1979년 7월을 기하여 공포한 「중외합자경영법(中外合資經營法)」과 1980년 7월에 세운 「경제법규연구센터(經濟法規研究中心)」는 경제법규의 계획적 제정과 책임을 맡았고, 동시에 1982년 12월에 공포한 헌법에는 정식으로 합자기업(合資企業)을 승인하였다. 이 이외에도 중공은 적극적으로 미국, 스웨덴, 일본, 서독, 캐나다, 영국 등의 나라와 관계되는 투자 권익을 보장하였다. 또 중공은 이외에도 다른 나라와 투자보증협정을 체결하였고 투자자에게 '최혜국대우(最惠國待遇)'를 하였다. 또한 외국과 체결한 경제계약의 권리와 의무관계의 기본규정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까닭에 1984년

「광둥성 인민대표대회(廣東省人民代表大會)」는 「심천경제특구섭외경제합동규정(深圳經濟特區涉外經濟合同規定)」을 제정하였으며, 1985년 3월 「인민대표대회(人代會)」에서는 정식으로 「섭외경제합동법」을 통과시켰다. 中共은 1979년에서 1985년 까지 약 350여건의 대외경제법규를 제정하였지만, 건전한 경제법제는 아직도 시간과 경제조건에 있어서 부단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전문은행의 설립과 국제채권의 발행

中共은 외국자본 흡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2년에 「중국투자은행」을 설립하였는데, 그 자본의 총액은 40억 Rmb이고, 그것을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중개기구로 삼았다. 이 은행의 주요임무는 세계은행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 내지는 기타 다른 자원, 예를들면 국제채권 시장에서 발행한 채권을 자금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1984년 이미 일본의 엔화 채권발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1985년 5월에는 서독의 1500만 마르크 채권 발행이 7년을 기한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스위스프랑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국투자은행」은 다른 나라 정부의 중·장기 자금 도입협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중공 중소기업의 기술과 설비의 개선을 위한 용자로 제공되는 것이다. 동시에 동은행은 또한 합자경영사업(合資經營事業)에 있어 Rmb와 외환의 용자를 제공하는 업무도 부담하고 있다.

7. 대외무역체제의 개혁

中共의 과거 수·출입 업무는 모두 대외무역부에 소속된 국영(國營) 대외무역회사들이 통일된 경영을 하였다. 고로 효과가 결핍되어 1979년 이후 부터 계속 수정·변경 하였는데, 그 주요한 조치로는 (1) 지방의 대외 무역의 권한을 확대하고, (2)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면서 행정관리를 강화하며, (3) 무역회사의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4) 대리 (offer)제조를

도입하고, (5) 수·출입 제품의 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8. 수출장려와 수입억제

中共은 과거 외화부족으로 인해 무역면에 있어서 수출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수입은 제한하였다. 그후 기술과 설비의 도입이 공업발달의 필수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입으로 수출을 촉진하는 政策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4 과 1985년 상반기에는 무계획적인 수입으로 외환의 보유액이 급격하게 하강하였으므로 올해에는 다시 수입을 억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소비재의 수입을 억제하였으며 또한 '기술과 무역의 결합(技貿結合)'의 원칙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받아들여, 그것으로 하여금 대륙지역의 생산을 확보함으로써, 제품생산의 '국산화'의 비율을 높여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방면에는 신용대출결합(信貸結合)의 원칙을 채택하여, 수출신용대출을 장려하였으며, 외환보유제도를 확립시켰다. 이것 이외에도 더욱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은 노동력의 수출인데 해외공사의 수주를 얻는 것(海外工程乘包)은, 첫째 대륙의 건축재료와 설비 등을 수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우의(友誼)와 외화를 얻을 수가 있으며, 셋째로는 기술의 습득과 과학적인 관리를 거기에서 배우자는 것이다.

근년에 들어서 中共은 적극적으로 해외투자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중요한 분야로는 자원의 개발사업, 공업생산, 가공설계 등이다. 그중에 홍콩과 마카오지역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기타 지역으로는 캐나다, 태국 등 30여개국에 이른다.⁵⁾

5) 「中國經濟新聞」第50期, 1984년 pp.14-15.

IV. 開放政策의 成果

1. 資源사용의 효율提高

경제성장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生産要素의 수량을 증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술수준의 진보이다. 中國大陸은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과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의 限界生産力은 零에 접근하는 추세이다. 또한 자본의 증가율은 소득수준의 低下로 인해 대량 증가가 불가능해, 매년 겨우 500~600억 Rmb의 증가로 6~7%의 증가율에 불과할 뿐이다.⁶⁾

만약에 잠가상각을 감안하면 그 증가율은 5%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中共은 근래 5년간의 경제성장 來源의 적어도 60%는 資源사용의 효율을 제고하는데 사용했다.⁷⁾ 또한 그 資源사용 효율제고의 주요한 내용적 원인은 제도 및 정책의 개혁으로 인해, 資源의 사용에 있어서 효율이 낮은 부분을 높은 부분으로까지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무역은 또한 국제적인

6) 「中國經濟統計資料選編」, 中共「國家統計局」發行, 1982년 資料에서 그 고정자산이 약 8,000억 Rmb라고함.

7) 中共의 총생산출법

$$Q=f(K, L, t)$$

式 가운데 Q는 산출액, K와 L은 서로 다른 자본금과 노동량을 나타내고, t는 기술진보를 나타낸다면, Q의 산출법은

$$\text{즉, } dQ = \frac{\partial Q}{\partial K} dK + \frac{\partial Q}{\partial L} dL + \frac{\partial Q}{\partial t} dt$$

$$g_Q = \frac{dQ}{Q} = \frac{MP_K K}{Q} \cdot \frac{dK}{K} + \frac{MP_L \cdot L}{Q} \cdot \frac{dL}{L} + t$$

노동이익이 낮은(노동력이 풍부한) 사회에서 MP_L 은 0에 수렴한다. 따라서 위의 식은 $g_Q = \phi_K g_K + t$ 로 변형할 수 있다. 식 가운데 g_Q 와 g_K 는 Q와 K의 성장율을 표시하며, ϕ_K 는 자본소득의 액수를 표시하고 t는 기술진보율을 나타낸다. 中共의 6년간 경제성장율이 8.3이고 자본증가율은 7%이며, 만일 자본소득액이 0.5라고 한다면,

$$t = 8.2\% - 7\% \times 0.5 = 4.8$$

$$4.8/8.2 = 58.5\%$$

비교이익수준의 원칙에 배합되도록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들어 세계의 곡물가격이 낮아지면 大陸의 농업은 생산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식량작물의 재배를 감소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제작물의 생산으로 바꾸어서 그 경제작물을 수출한 댓가로 식량작물과 바꾸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국제무역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변화하는 것으로, 단지 농업부문 뿐만 아니라 공업부문도 역시 이런 방식에 따라 변화를 이루어 자원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된다.

2. 대외 무역량의 증가와 외환보유고의 변화

수출면에 있어서 경공업·방직공업의 발전을 증시한 관제로 국내의 수요를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大陸의 비교우위원칙에도 부합되었다. 이는 중국이 국제무역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한 개혁을 이룬 결과이다. 즉 무역 총액에 있어서 1978년의 206억 달러에서 1984년에는 536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니 연평균 성장율이 15.94%에 달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수출액은 97.5억 달러에서 259.6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율이 16.3%에 이르렀고, 수입액은 108.9억 달러에서 276.7억 달러로 연평균 15.54%의 성장율을 보였다.

1981년부터 1983년까지 무역의 순차와 자본수입으로 인해 中共의 외환보유고는 1978년의 15.6억 달러에서 1984년에는 14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⁸⁾

이러한 외환의 보유액이 증가로 인해 그중의 100억 달러는 서방의 은행에 예치시켰고, 나머지는 국제채권의 투자에 참여하였는 바, 그 중에는 미국재무성 발행의 채권을 구매할 것, 유럽금융시장의 각종 인양이 가능한 채권증, 일본국채와 각종국채금융시장에 운영되고 있는 자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8) 「共匪經濟動態摘報」, 제 164 기, 「경제부」 국제무역국발행, 중화민국 74년 1월 16일.

3. 경제적 통일전선의 효과

中共의 근년 경제개혁 실시는 모종의 성과를 거두어 국제적 지위에 있어 약간의 개선술 하였으며 화교와 외국상사들로 하여금 大陸에 투자하도록 유인하고 있으며 세계의 여러나라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도이칠란트, 이탈리아 등으로 하여금 증공이 앞으로 더욱 서방자본주의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금과 기술을 더욱 지원하게 유도하고 있다.

V. 開放政策으로 惹起되는 諸般問題

1. 경제목표와 정치목적의 상충

경제발전은 자유스러운 환경을 필요로 할 뿐아니라, 생산자원의 국내에서의 유통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심지어는 국가간에도 상당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가격 또한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자원의 효율을 고도로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보수파의 세력들은 개방경제체제가 사회주의적 사상을 해이하게 만든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의하여 사회주의가 오염됨으로 이에 따라 개방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방의 속도는 더욱 늦어지고 있고, 대외정책도 일관성이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中共은 각방면에 있어서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외무역을 활성화 시키고, 집중관리의 우월성을 발휘하여 통일된 대외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각종 환율, 세수, 가격, 외환관리제도 등이 모두 다 대외무역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것이나 이런 제도들이 아직까지 매우 경직된 것은 사실이다.

2. 경제사범의 증가와 증첩된 투자로 인한 낭비

각 省과 각 무역단위가 부분적인 의화보유로 수입을 진행함에 따라 각 단

위 사이에는 연관성과 규제된 계획성이 결여되어 이로 인한 중복된 기술도입과 설비투자가 이루어졌고, 불필요한 낭비가 성립되었다. 이 외에도 개방정책의 실행으로 인하여 일부 간부들은 직권이나 中共의 정권이 부여한 자주권을 이용하여 불법경제활동(범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밀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량으로 소비품을 수입하여 높은 가격으로 국내에서 판매한다든지 하는 방식이다. 해남도(海南島)의 大不正事件은 40億 Rmb에 달하고 관여되는 간부만도 천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경제개방의 정도가 높아지고 자주권이 확대되고 또한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이 경제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V. 展 望

1. 결 론

中共은 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자원의 사용효율을 제고시키고, 외국과의 무역이 증가하였으며, 외환의 보유액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개방지구의 증가는 4개의 경제특구에서 연해도시로 확대되어 대륙내부로 확장함을 보여 왔다. 1979년부터 1984년까지 中共의 외자도입총액은 280억 달러에 달하고, 그중 이미 사용한 외국의 자본은 167억 달러이다. 4개 경제특구가 외국의 상인들과 협의한 투자액은 20억 달러에 달하고 실제로 운용한 액수는 8.4억 달러이다. 그리고 심천(深圳)特區의 공업산품의 생산치는 1979년의 6,000만 Rmb에서 1984년에는 18억 Rmb로 증가되었다. 비록 개방정책이 일단의 폐단, 예를 들었던 경제범죄, 투자의 낭비 등을 수반하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2. 전 망

일부의 보수인사들의 개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재의 실권자인 鄧小平은 경제특구의 건립정책은 정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개방정책은 굳건히 지켜져서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⁹⁾

이외에도 谷牧과 같은 사람은 개방정책이 정확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한 개방정책의 작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며 경제적인 입법조치를 강화하고 각종 전문인재를 배양하여 좋지않은 폐단과 병적인 현상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

예상되는 미래의 시간까지 中共은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개방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부의 정치적 인 노력의 消長에 따라 결정된다.

9月, 中共에서 거행된 당대표대회에서 谷牧은 中共 中央書記處 書記職을 박탈당했는데, 그것은 개방정책이 불러 일으킨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남도의 대부정 사건과 晉江의 가짜藥사건 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반감을 불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진운(陳雲), 鄧力群(鄧力群) 등은 여전히 연임되었으며 진운은 개방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것으로 반대세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中共의 정책은 여전히 '계획성'과 '시장성' 사이를 배회하고 있으며, 현재의 권력층은 '공유제'의 기초 위에 국부적으로 자유경제체제의 장점을 살려, 생산력을 향상시키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9) 「人民日報」, “鄧小平縱談 對外開放政策和國際形態”, 1985. 8. 2,

10) 大公報, 「谷牧談繼續對外開放」香港, 1985. 7. 21. ~22.